

“○, △”의 音韻史的 考察

吳鍾甲

I.

Saussure 는 言語循行에 對하여, 具體的 現顯인 parole 을 通하여 抽象的 觀念인 langue 가 贯藏되고, 저장된 langue 가 產出되면 parole 이 된다고 하였다. 이 말 속에 지닌 뜻을 吟味하면, 言語는 抽象化된 觀念語와 實現된 具體語로 二元的으로 構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理論을 言語의 歷史的 考察에 適用시켜 보면, (여기서는 意味論의 側面은 除外한다.), parole 的 歷史와 langue 的 歷史 둘을 理論의 으로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音韻史에 適用시키면 parole 的 分野인 音聲史와 langue 的 分野인 音韻史의 둘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生成音韻論의 觀點에서 각각 表面音聲史와 基底音韻史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國語音韻史 研究에서는 具體的인 音聲을 通하여 音韻을 定立하고 다시 그 音韻의 變遷史를 考察해 왔으나, 자세히 살펴 보면, 音韻史를 考察한다는 名目으로 試圖된 研究가 音韻史의 研究보다는 音聲史의 研究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테면, 15 世紀 國語의 /△/는 獨立된 音韻으로 認定되고 있으며, 音韻史上으로는 16 世紀 末葉에 消滅될 것으로 보는 것이 學界的 通說인 듯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主張의 根據를 살펴 보면, ‘△’로 表記된 語彙가 16 世紀 末葉 以後에는 文獻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살펴 보면, 위의 學說은 音韻 /△/의 變化를 말한 것이 아니라 音聲 [△]의 變化를 論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즉 15 世紀 國語의 基底音韻 /△/는 表面音聲 [△, ㅅ]의 둘을 가졌던 것으로 16 世紀 末葉에 두 개의 表面音聲中 하나가 變化를 일으켜 [△]>[ㆁ]로 되긴 하였어도, 또 하나의 表面音聲 [ㅅ]는 16 世紀 末葉까지는 물론이고 現在까지도 存續하고 있으며, 基底音韻 /△/도 表面音聲 [ㅅ]로 實現되면서 現在까지 存續한다. 或者는

音韻／△／는 16世紀末葉以後 [△]>[◎]의 結果로 音韻體系의 再構造化가 이루어져 表面音聲 [ㅅ]는 基底音韻／ㅅ／로부터 生成된 것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重大한 過誤를 犯하고 있으니,／△／로부터 導出된 [ㅅ]와／ㅅ／로부터 導出된 [ㅅ]는 表面音聲으로는 同一하지만, 基底音韻에는 差異가 있음을 看過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에서는 Saussure의 langue와 parole의 概念에 바탕을 두고, 音韻變化의 原理를 假說的으로 살펴 본 다음 이 原理를 바탕으로 國語音韻史를 考察하고자 한다.

parole을 通해 langue가 저장되고 저장된 langue가 實현되면 parole이 된다고 한 Saussure의 主張은 言語變化라는 觀點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parole의 變化가 原因이 되어 言語의 變化를 招來하는 경우로서, 저장된 langue가 parole로 實現될 때 言語 內外的原因으로 langue와는 다른 parole이 實現되어, 이것이 繼續될 때는 parole을 通해 langue가 저장되므로, 變化된 parole을 通한 langue의 저장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既存의 langue는 消滅되고 새로운 langue가 貯藏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langue의 재구조화 과정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parole의 變化로 새로운 langue가 저장될 때 parole의 變化가 認識되는 時期를 起點으로 하여 그 以前의 言衆(以下 成人이라 稱함)과 그 以後의 言衆(以下 兒童이라 稱함) 사이에는 parole을 通한 langue의 저장에 差異가 있다는 點이다. 이를 테면, 成人の立場에서는 langue①로부터 parole②가 產出되고 產出된 parole②로부터 다시 langue②가 저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langue②는 中간단계의 langue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경우의 成人은 이미 langue①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Langacker, 1977 : 230~236) 그리고 다시 中間段階의 langue②로부터 parole③이 產出되는 過程을 眓는데 比해, 兒童의 경우는 parole②는 經驗한 적이 없기 때문에 parole②를 通한 laogue②는 저장될 수가 없고 오직 成인이 langue②로부터 產出해 놓은 parole③만을 通해서 langue③이 저장되는데, 이 경우는 言語體系에 비추어 再構造化된 langue가 저장된다. 그리하여 成인이 死滅할 때까지는 langue①과 中간단계의 langue②를 거쳐 產出된 parole③과 langue③으로부터 產出된 parole③이 共存하다가 成人の死後로는 langue③으로부터 產出된 parole③만이 남게 되어 言語變化의 바톤

은 兒童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以上에서 살펴 본 言語의 變化는 成人이 먼저 *parole*②에서 *parole*③으로 變化를 일으킨 것으로 假定한 說明이었다. 그러나 實際로는 兒童便에서, 不完全習得과 같은 일로 因하여, *parole*②를 *parole*③과 같이 듣게 된 結果 成人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langue*의 變化를 招來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兒童은 *parole*③으로부터 一言語體系에 비추어 一 *langue*③을 저장하게 되고, 成人の 경우는 *langue*①로부터 產出된 *parole*②를 이미 經驗했기 때문에 그들의 言語體系에서는 *parole*②가 일단 중간단계의 *langue*②로 저장되고, 이 저장된 중간단계의 *langue*②로부터 *parole*③이 實現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제까지는 *parole*②로 實現되던 것이 *parole*③으로 實現되기 때문에 *langue*①이 *parole*②로 실현되는 音韻規則에 다시 *parole*②가 *parole*③으로 변화되는 規則이 添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parole*로부터 *parole*이 產出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의 *parole*②는 이미 *langue*②化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두 경우는 변화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同一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表로 보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假說을 例證하기로 하자.

中世國語에서는 받침을 가진 音節은 다음 音節이 母音으로 시작될 때는 連音되는 것이 原則이었다. 그런데 15世紀 國語의 ‘아수’는 母音으로 시작된 助詞가 後行하면, ‘아수+이→아이’와 같이 되어 連音이 되지 않다가 16世紀에 들어 오면 ‘아수+이→아씨’로 나타나 言語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 變化過程을 위의 假說에 따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成人便에서 ‘아이>아씨’의 變化가 일어났다고 假定하면, *langue*① ‘아수+이’가 *parole*② ‘아이’로 실현되고, 다시 *parole*②는 오래 사용되는 동안에 *langue*化하여 *langue*② ‘아+이’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의 一般原則인 連音規則에 따라 *parole*③ ‘아씨’로 實現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成人の ‘아씨’를 接하게 된 兒童은 *parole*③ ‘아씨’로부터 *langue*③이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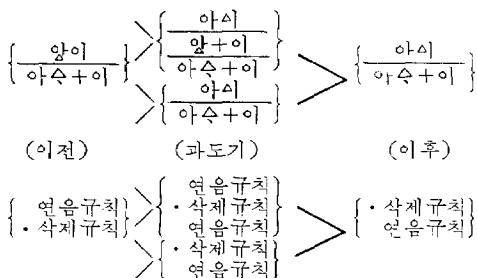
되게 되는데, 이 당시의 言語體系에서는 單獨形 ‘아수’, 共同格形 ‘아수와’ 등이 存續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言語를 배우게 되는 兒童은 言語體系 全體 속에서 그들 나름으로 再構造化된 langue③ ‘아수+이’가 저장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아수+이→양이→아이’의 過程으로 실현된 成人の 言語와 ‘아수+이→아이’로 실현된 兒童의 言語가 共存하다가 成人の 死滅後에는 중간 단계의 langue② ‘양+이’로부터 실현된 parole③ ‘아이’는 消滅되고, langue③ ‘아수+이’로부터 실현된 parole③ ‘아이’만이 存續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5 世紀의 ‘양이’는 16 세기에 들어와서 ‘아이’로 실현되어 言語의 變化를 보이게 되었다.

다음에는 兒童便에서 어떤 原因으로 成인이 실현시킨 ‘양이’를 ‘아이’로 들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兒童들은 parole③ ‘아이’를 通해, 그 당시의 言語體系에 비추어 再構造化된 langue③ ‘아수+이’를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成人は parole③ ‘아이’를 통해 저희들이 이제까지 langue①로부터 실현시킨 parole② ‘양이’의 變化를 認識하게 되어 ‘양이’가 중간단계의 langue②가되고, 이 langue②로부터 parole③ ‘아이’를 실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수+이’로부터 ‘아이’를 실현시킨 兒童의 言語와 중간단계 ‘양이’로부터 ‘아이’(歷史的 過程으로는 ‘아수+이→양이’ > ‘아수+이→양이→아이’)를 실현시킨 成人の 言語가 共存하다가 成人の 死滅後에는 兒童의 言語 ‘아수+이→아이’만이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역시 15 世紀 國語의 ‘양이’는 16 世紀에 들어와서 ‘아이’로 되어 言語의 變化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成人便에서 먼저 言語의 變化를 招來했건 兒童便에서 먼저 言語의 變化를 招來했건 言語變化 結果는同一하다.

그러므로 言語變化의 결과에서 볼 때, 成人の 立場에서는, langue는 ‘아수+이>아수+이’로 변화가 없으나 parole은 ‘양이>아이’로 변화가 일어났고, 兒童의 立場에서도 langue의 變化는 없고 parole만이 ‘양이>아이’로 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言語變化를 規則의 變化面에서 살펴 보면, 15 世紀 國語에서는 ①連音規則 ②·削除規則의 두 규칙이 ①②의 順序 그대로 適用되다가 16 世紀에 들어와서는 成人の 경우는 앞의 ①②의 규칙이 적용된 結果에 새로운 하나의 규칙(여기서는 連音規則)을 添加시킨 것이 되고, 兒童의 경우는 앞의 ①②의 두 規則을 그 適用順序만 바꾸어 ②①의 順序로 適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過渡期가 지난 뒤에는 이 兒童의 規則만이 남게 된다.

이상에서 論述한 바를 要約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둘째는, *langue*의 變化에 依한 言語의 變化로서, 이는 *langue*^① 言語內外의 原因으로 *parole*의 變化를 通하지 않고 바로 *langue*^②로 變化를 일으켜 *langue*와 *parole*이 同時に 變化되는 경우로서, 例證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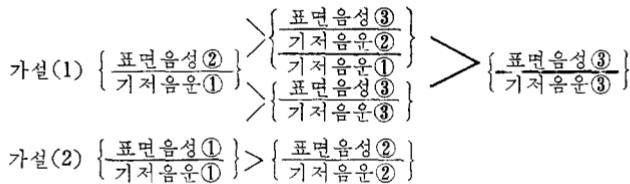
中世國語에서는 用言의 語幹에 {오／우}를 接尾하여 副詞를 만드는 派生法이 發達하여 ‘각초, 너무, 조조, 비르소, 글오’ 따위의 副詞가 쓰였는데 ‘바른다’라는 用言에서 派生된 副詞는, 語幹을 그대로 써서, ‘바른’로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 ‘바른’은 後代에 오면, ‘각초, 너무, 조조, 비르소, 글오’ 등에 類推되어 ‘바로’로 變化된다. (허웅, 1975:517) 그러므로 이 ‘바른>바로’의 變化는 *parole*의 變化가 原因이 된 言語變化가 아닌, *langue* 自體의 變化로 因한 言語의 變化인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langue* ‘바로’로부터 *parole* ‘바로’가 產生되어 *langue*와 *parole*이 同時に 變化를 입게 되었다.

$$\left\{ \begin{array}{c} \text{parole}^{\text{①}} \\ \text{langue}^{\text{①}}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text{parole}^{\text{②}} \\ \text{langue}^{\text{②}} \end{array} \right\}, \quad \left\{ \begin{array}{c} \text{바른} \\ \text{바른}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text{바로} \\ \text{바로} \end{array} \right\}$$

以上에서 우리는 論證을 通해 言語變化의 假說을 세워 보았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假說을 바탕으로 音韻變化를 考察하되, 基底音韻 및 表面音聲의 變遷史는 물론이고 基底音韻으로부터의 表面音聲 導出過程에 適用된 音韻規則의 變遷史도 아울러 考察하고자 한다.

그런데 위의 假說에서 使用된 *langue*와 *parole*은 音韻論의 立場에 局限시켜 생각하면 각각 基底音韻과 表面音聲에 該當하므로 위에서 設定된 假說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진다.



II.

여기서는 ‘o, Δ’의 音韻 設定 可能性을 살펴 보고 나아가서 위에 設定 한 假說에 따라 基底音韻史, 表面音聲史 및 音韻規則 變遷史를 考察하기로 한다.

2·1. 中世國語의 字素 ‘o’의 音價 推定 및 音韻 設定 與否에 對해서는 學者에 따라 差異를 보이고 있으니, [李崇寧(1954: 216~217)]에서는 訓民正音解例의 說明에 의거하여 ‘o’가 聲帶振動을 가진 有聲音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正確하게 그 音價를 規定하진 않았지만 有音價의字素로 보고 있으며, 허옹(1975: 342~343)에서는 訓民正音解例 終聲解의 ‘聲淡而虛’란 說明과 ‘o’의 用例를 들어 無音字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李基文(1972: 15~29)에서는 解例 終聲解의 ‘聲淡而虛’란 ‘o’이 [終聲으로 쓰일 必要가 없음을 말한 것으로 終聲 以外의 경우에는 ‘o’이 使用될 必要가 있음을 示唆한 것이라고 하여 엇갈린 解析을 하였으며, 또 解例의 餘他의 記述과 實제 ‘o’의 用例를 검토하여 앞 음절의 영향을 거부하는 경우의 ‘o’의 音價를 [6]로 推定하여 하나의 音素로 認定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解例의 說明과 實際 ‘o’의 用例를 보다 면밀히 檢討하여 ‘o’의 音素 設定 與否를 밝혀 보고자 한다.

訓民正音解例의 初聲解에 依하면, ‘o 喉音 如欲字初發聲’이라 하였으므로 ‘o’이 母音 아닌 子音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o’이 나타나는 환경은 音節의 初聲과 終聲이 된다. 그런데 終聲에서는, 漢字의 表音에서 意圖的으로 使用된 경우를 제외한, 固有語의 경우에는 解例 편찬자들이 終聲解에서 ‘且 o 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라고 한 것과 같이 그 用例가 나타나지 않는다.

‘o’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은 初聲이 되겠는데, 이 初聲의 音價

에 對한 解例의 說明으로는 ‘○喉音如欲字初發聲(例儀), ㆁㄴㅁㅇㄹ△爲不
淸不濁 ㆁㅁㅇ其聲最不屬(制字解), 初聲之ㆁ與○相似 於謬可以通用也(合字
解), 挹欲於謬用相同(合字解)’ 등이 있으며, 이 外에도 ‘唯牙之ㆁ雖舌根閉喉
聲氣出鼻 而其聲與○相似(制字解), 盖喉屬水而牙屬木 ㆁ雖在牙而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尚多水氣也(制字解)’ 등의 記述이 있어 ‘ㆁ’가 有音
價의 字素인 것처럼 說明하고 있으며, 實際 用例로도 ‘ㆁ’이 나타나고 있다.
(例, 아비, 一이, 一애, 등). 그러나 이것이 字音을 末音으로 가진 音節 다
음에 連結될 때는 子音의 如何를 불문하고 ‘ㆁ’가 削除되고 만다. (例, 한
+아비→하나비, 갈+아→가라, ㄱ률+이→ㄱㄹ미, 등), 言語學上으로 볼
때 모든 子音 뒤에서 削除되는 子音이 있다는 事實은 보고된 바 없으므로,
이 경우의 ‘ㆁ’ 역시 어떤 音價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通說과 마찬가지로 ‘ㆁ’은 韻書의 噴母에 해당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無音字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李基文 教授는, ① 15世紀의 表記法은 충실히 音節에 對應하여
終聲을 가진 音節에 母音으로 시작되는 音節이 連結될 때는 終聲이 다음 音
節의 初聲이 되어 連音되는 것이 原則이나(이 경우의 單位는 語節), 이에
어긋나는 例(알오, 알어늘)와, ② i, y 뒤에 오는 母音의 接辭에는 앞의 i, y
의 形狀으로 y가 添加되는 것이 原則인데도 (例. 뛰여), 그렇지 않은例外
가 있음(例. 뛰우一(使動))을 지적하여, 이 ①②의 例外의 경우는 ‘ㆁ’이
子音의 機能을 가졌기 때문에 앞 音節의 形狀이 거부된 것이라고 하여, 이
경우의 ‘ㆁ’의 音價를 [n]로 보고 音素 /n/를 15世紀 國語에 設定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는 이와는 달라 이 모든 경우의 ‘ㆁ’ 역시 [ŋ]로
본다. 다음에 具體的으로 논의해 보자.

먼저 앞 音節의 形狀을 거부하는 ‘ㆁ’이 나타나는 例들을 살펴 보면,

- ① ‘ㄱ’이 削除된 경우
- ② ‘-, 一’가 削除된 경우
- ③ ‘ㆁ’가 變化된 경우

의 세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에서 이들에 나타나는 ‘ㆁ’이 무엇인지 살
펴 보자.

2-1-1. ‘ㄱ’이 削除된 뒤에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ㆁ’이 쓰인 例는 다음과 같다.

① 合成語를 構成하는 ‘비(梨 杜초15:21)+개(浦 杜초7:19)→비애(용 3:13)’와 같이 ‘ㄱ’이 음성환경의 영향을 받아 削除된 뒤 그 자리에 ‘ㅇ’이 쓰인 경우다. 그런데 15世紀 國語의 hiatus回避를 위한一般的 音韻現象인 y添加—‘비+애→*비애’—가 일어 나지않은 理由를 李基文 教授의 立場에서 解析하면, ‘비애’의 ‘애’의 ‘ㅇ’이 子音이기 때문에 앞의 y가 뒤의 ‘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理由 때문이 아니라, ‘개(浦)’, ‘합개(合浦 용1:49)와 같은 어휘가 ‘비애’와 共存하기 때문에 ‘비애’의 경우는 비록 ‘ㄱ’이 削除되었다고 해도 ‘ㄱ’에 대한 音韻觀念이 머리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基底形／비+개／에 ‘ㄱ削除觀則’이 먼저 적용되고 다음에 hiatus 회피를 위한 y첨가가 이루어진다면 表面形 *[비애]가 나타나게 되겠으나, 실제는 基底音韻／ㄱ／ 때문에 hiatus 회피를 위한 y添加는 必要 없는 것으로 생각한 다음에 음성환경의 영향으로 ‘ㄱ’이 削除되었기 때문에 表面形 [비애]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音韻規則의 적용 순서에 差異가 있는 것이다.

이의 導出過程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저형／비+개／	기저형／비+개／
y첨가 —————	ㄱ삭제 비+애
ㄱ삭제 비+애	y첨가 비+y+애
표면형 [비애]	표면형 *[비애]

‘갈아마파’(鷗 四聲通解上29)는 ‘갈가마파’(字會上16)의 ‘ㄱ’이 削除된 경우인데, 이것 역시 ‘ㄱ’에 대한 音韻觀念이 作用하여 ‘갈’의 ‘ㄹ’이 다음 音節의 初聲으로 連音되지 않은 것이다.

이의 導出過程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저형／갈+가마파／	기저형／갈+가마파／
연음 —————	ㄱ삭제 갈+아마파
ㄱ삭제 갈+아마파	연 음 가라마파
표면형 [갈아마파]	표면형 *[가라마파]

② 助詞 ‘파, 곳, 곰’등은 母音과 ‘ㄹ’ 밑에서 ‘와, 웃, 워’ 등으로 나타나 ‘ㄱ’이 削除되고 그 자리에 ‘ㅇ’이 쓰였는데, 이 경우 역시 ‘임시율의 혜화’

‘엄파 니에 다 빼는거’(釋1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형태가 共存하기 때문에 음성환경의 영향으로 ‘ㄱ’이 削除되더라도 ‘ㄱ’에 대한 音韻觀念이 남아 있어 앞 音節 末音과의 사이에 連音이나 hiatus 회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ㄱ’이 削除되니까 連音이나 hiatus 회피가 일어나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나, 基底에 ‘ㄱ’이 있기 때문에 連音이나 hiatus 회피는 不必要하다는 생각이 앞서고 다음에 음성환경의 영향으로 ‘ㄱ’을 削除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現代國語에서 子音 末音을 가진 用言의 語幹에는 語尾 ‘-으니’가 붙으나(例, 먹으니) 母音 末音 語幹에는 ‘으’가 削除되고 ‘-니’만 붙는데(例, 오니), ‘잇-’(繼)의 경우에는 ‘ㅅ’이 削除되고 語幹이 ‘이-’가 되어도 ‘ㅅ’에 대한 音韻觀念 때문에 ‘-니’가 아닌 ‘-으니’가 連結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의 導出 過程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저형 /입시울+파/	기저형 /입시울+파/
연 음 —————	ㄱ삭제 입시울+와
ㄱ삭제 입시울+와	연 음 입시우파
표면형 [입시울와]	표면형 *[입시우파]

③ 語尾 ‘-거늘, -거나, -거니, -거든, -건마론, -거아, -고, -고도, -고라, -파라, -판더, -고져, -곡, -꼰, -파더, -케, -끼’ 등은 ‘i, y’나 ‘ㄹ’ 밑에서 ‘ㄱ’이 削除되고 그 자리에 ‘ㅇ’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ㄱ’에 대한 音韻觀念의 存續으로 連音이나 hiatus 회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例의 導出 過程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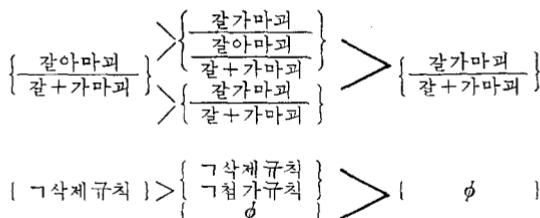
기저형 /일+거늘/	기저형 /일+거늘/
연 음 —————	ㄱ삭제 일+어늘
ㄱ삭제 일+어늘	연 음 이려늘
표면형 [일어늘]	표면형 *[이려늘]
기저형 /두외+거늘/	기저형 /두외+거늘/
y첨가 —————	ㄱ삭제 두외+어늘
ㄱ삭제 두외+어늘	y첨가 두외+y+어늘
표면형 [두외어늘]	표면형 *[두외여늘]

위 ①②③의 경우에 해당하는 더 많은例들은 허옹(1975: 471~472)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ㄱ’이削除된 뒤에 앞 音節의 영향을 거부하는 것은 ‘ㅇ’이 어떤 音價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基底音韻의 作用에 依한 것임이 명백해졌다.

그런데 이들의 歷史的 變遷을 보면, 近代國語에 들어와서는 ‘갈아마파> 갈가마파’처럼 되어 基底의 ‘ㄱ’이 되살아났는데, 그 理由는 表面形 ‘갈아마파’를 接한 兒童은 ‘가마파’란 말이 있으므로 ‘갈가마파’란 基底形이 저장되고, 이 基底形이 그대로 表面形으로 실현되어 表面形의 變化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가마파’란 말이 없었다면 ‘갈아마파’가 그대로 基底形이 되어 表面形의 變化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變化過程 및 音韻規則의 變遷을 위의 假說에 따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1·2. 앞 形態素의 末音 ‘·, 一’가 削除된 原因으로 後續의 母音으로 시작된 形態素(初聲의 자리에 ‘ㅇ’이 있음)에 앞 音節의 영향이 저지되는 경우가 있다.

① 體言에 母音으로 시작되는 助詞가 連結될 때는 體言 末音 ‘·, 一’가 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남은 子音은 다음 音節에 連音되지 않는다. 例. 놀이(獐 용43), 엿이(狐 月印2:76).

그런데 李基文 教授는 그 원인을 ‘ㅇ’이 子音 [ɸ]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筆者の 見解는 이와는 다르다.

위의 例 ‘놀이’와 ‘엿이’는 각각 ‘노르’와 ‘여스’에 助詞 ‘一이’가 連結된 것인데, 먼저 ‘·, 一’가 削除되었다면 連音이 되어 “노리”, “여시”처럼 되었겠으나, 실제로는 ‘·, 一’가 있기 때문에 連音이 不必要하다고 생각

한 다음 음성환경의 영향으로 ‘·, 一’가 削除되었기 때문에 ‘*노리’, ‘*여시’가 아닌 ‘놀이’, ‘엿이’가 된 것이다. 이것은 앞의 ‘ㄱ’이 削除되는 경우와 同一한 音韻現象이다.

이들의 導出過程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저형 /노르+이/	기저형 /노르+이/
연 음 —————	· 삭제 노르+이
· 삭제 노르+이	연 음 노리
절 음 (r→l) 놀+이	절 음 (r→l) —————
표면형 [놀이]	표면형 *[노리]
기저형 /여스+이/	기저형 /여스+이/
연 음 —————	—삭제 여△+이
—삭제 여△+이	연 음 여시
절 음 (△→ㅅ) 엿+이	절 음 (△→ㅅ) —————
표면형 [엿이]	표면형 *[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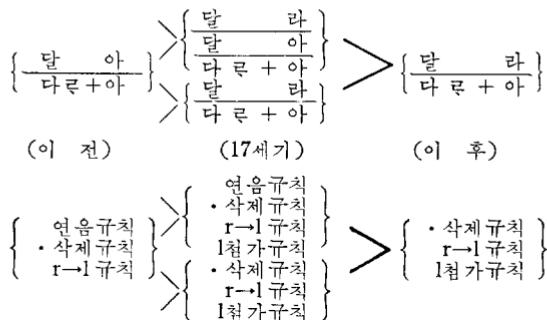
② ‘·, 一’末音을 가진 用言語幹에 母音으로 시작되는 接辭가 連結되면 ‘·, 一’가 削除되는데, ‘·, 一’에 先行하는 子音이 다음 音節에 連音되지 않는다. 例. 달아(訓正), 빙우물(飾 永가下137) 등.

이 경우 역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一’에 대한 音韻觀念이 作用했기 때문에 連音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다르+아→*다라’가 되지 않고 ‘달아’로 된 것을 ‘○’이 子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리+어→그려’나 ‘롤히+아→롤히야’의 경우에도 同一한 副詞形語尾 ‘—아／—어’가 連結되었는데도 각각 縮約과 y 添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가 子音이라면 이러한 現象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비추어 보아도 ‘다르+아’가 ‘*다라’로 되지 않고 ‘달아’로 된 것은 ‘—아’의 ‘○’이 子音이기 때문이 아니라 削除된 ‘·’ 때문이라는 事實이 확실해 진다.

그런데 이들의 歷史的 變遷을 보면, 17世紀에 들어와서는 ‘놀이>놀리’, ‘달아>달라’처럼 되어 [1]이 添加되는데, 이는 滑音調現象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變化過程 및 音韻規則의 變遷을 위의 假說에 따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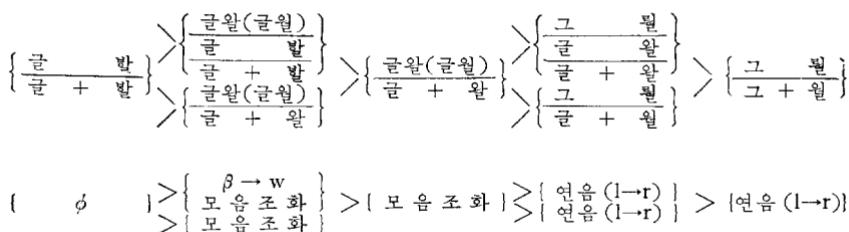


2.1.3. 音韻史上으로 볼 때 /봉/가 /w/로 變化를 일으켜 /w/로부터 產生出된 [w]를 表記할 文字가 없었던 中世國語에서는 이 [w]를 ‘오’, ‘우’ 등으로 表記하여 ‘o’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앞 音節 末音의 영향이 거부된다. 例. 글월(釋 9:38), 글월(月序 11, 杜 초 20:1), 술오니(金강 73) 등.

筆者는 이 경우의 ‘o’도 無音價였을 것으로 推定한다. 李基文 教授 역시 이 경우의 ‘o’은 無音價로 보고 있는 듯하다. (李基文, 1972:23).

이를 테면, ‘글월’에서 앞 音節의 ‘글’이 다음 音節에 連音되지 않는 理由는 [wal](월)의 [w] 때문인데 (李基文, 1972:23), 여기에 母音調和規則이 적용되어 ‘글월’로도 나타난다. 歷史的으로는 現代國語의 ‘글월’이 ‘그월[kirwel]’로 發音되는 것으로 보아 어느 땐가 連音規則(l→r)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文獻의 實例가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变화의 연대는 알 수 없다.)

이의 變化過程을 앞의 假說에 따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술오니’의 경우에도 連音이 되지 않는데, 이것 역시 基底形 /w/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를 테면, 基底形 /salw+an/i/가 連音되어 [salwani] 가 되는데, 이 경우의 [w]는 中世國語의 表面音聲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音韻縮約이 일어나 ‘WA→O’로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表面形 ‘술오니’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로니’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오’ 속에 축약되어 있는 [w] 때문이다.

다음에 이의 도출 과정을 보인다.

기저형 /salw+an/i/	cf. 기저형 /nal+an/i/
연 음 salwani	연 음 narani
WA→O saloni	WA→O —
표면형 [saloni]	표면형 [nar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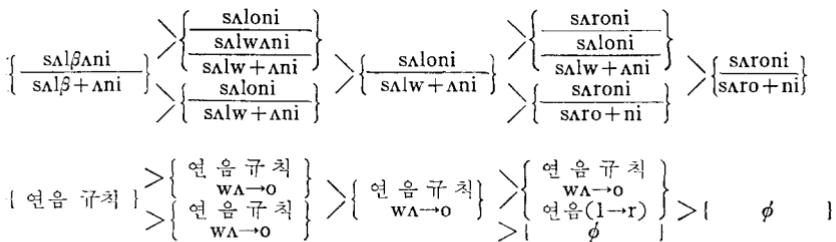
그런데 이 ‘술오니’는 後代에 내려오면 ‘수로니’로 되어 連音規則이 적용되었는데 이 연음규칙의 적용 결과로 어휘의 再構造化가 일어나 어간이 ‘수로—’로 된 듯하다. (이 경우 자음 어미가 연결된 예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만약 ‘술고’ 등이 나타났다면 어간은 ‘salw—’가 된다.)

하늘의 추미려 민족일을 수로리라(松江 1:3)

설운이를 주세이 수로리라(普勸 31)

金尚書人계 수화 주령(青丘 84)

이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앞의 가설에 따라 보이면 다음과 같다.



以上의 경우에서 볼 때, ‘글발>글월’의 경우에 나타난 ‘오’는 ‘영’이 ‘w’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이 [w]를 表記한 것이고, ‘술불니>술오니’의 ‘오’는 ‘βA>WA→O’의 [O]를 表記한 것으로 文字 ‘○’이 어떤 音價를 가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는 15世記 國語의 字素 ‘o’의 音價 有無를 판별하기 위해 共時的・通時的兩面에서 살펴 보았으나, 어느 面에서도 ‘o’은 無音字임이 확실해졌다. 그러므로 zero 音韻／ø／를 認定하지 않는 限字素 ‘o’은 15世記 國語의 音韻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o’의 音韻史的考察은 意義가 없다.

그러나 ‘o’의 音價 有無를 試하는 過程에서 附隨的으로 15世記 國語의 音節 單位로 碎어 表記되던 表記法의 一般原則의例外가 어떤 過程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分明히 알게 되었다.

2·2. 여기서는 ‘△’의 音韻 設定 與否와 그 音韻史的 變遷을 考察하기로 한다.

2·2·1. ‘△’가 하나의 音韻으로 設定될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使用例를 보자.

(1) ‘짚—~짓—’(造) : 지어(月釋1:12), 지온(同序3), 지운(同1:46), 지소듸(同17:38), 지온(同1:28), 지울씨라(同10:4), 지울씨오(同1:32), 지스면(同1:3), 지스샤(同序13), 지스산(同序16), 지쓰시과듸(同21:88); 짓거늘(同21:51), 짓고(同17:37), 짓는(金三3:45), 짓더니(同21:126), 짓던(同21:25), 짓더(同9:51) 등

이들例는 ‘△～ㅅ’의 變動을 보아므로 /△/의 音聲 實現이 [ㅅ]인지, 反對로 /ㅅ/의 音聲 實現이 [△]인지를 알 수 없다. 이제까지 學界에서는 주로 現代國語의 /ㅂ/, ㄷ, ㄱ/가 有聲音 사이에서 有聲音化한다는 觀念에 사로잡혀 [△]를 /ㅅ/의 實現이라고 보아 왔다. 그러나 다음의例들은 이러한 通說을 부정하게 된다.

(2) ‘벗—’(脫) : 벗서(月釋1:21), 벗슬(同序4), 벗서날씨니(釋6:39), 벗수미(愣5:7), 벗디(月釋序4) 등

의例에서는 母音 앞에서나 子音 앞에서나 다 같이 [ㅅ]로 實現되어 變動이 없다.

그러므로 例(1)을 /ㅅ/→[△]의 音韻現象으로 본다면 (2)의例 때문에例外的(個別的)인 사항으로 다루게 되어 보다 文法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고

例(1)을 /△/→[入]의 變動으로 보면 /△/를 가진 경우만 子音 앞에서 [入]로 變한다고 說明되므로 普遍的인 현상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와 /ㅅ/는 別個의 音韻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3) 거식(殆 釋 11:10), 겨술(冬 月釋 1:26), 그스름(始 字會 下 35), 마술(秋 蒙山 27), 나식(霽 四解 上 27), 모술(心 龍 102), 아수(弟 訓 用字例), 그스습고(牽 月釋 1:35) 등.

가식(棘 釋 11:35), 사술(叢 字會 下 22), 사술(鹿 訓 用字例), 가술(朐 月釋 2:41), 거스러(逆 龍 74) 등.

이 例(3)에서도 同一한 音聲環境 V—V에서 [△]와 [ㅅ]가 다 나타날 수 있어, 즉 相補配置 關係가 아니므로 別個의 音韻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다소 문체가 있다.

- (4) 둘+서 →두서(二三 胎產9), 두어(月釋 7:16)
풀+서리→프서리(草間 杜초7:8), 프서리(月釋 8:93)
- 한+삼 →한삼(律 字會 上 8), 한삼(四聲通解 上 70)
- 한+술 →한술(大息 釋 19:14), 한술(月釋 序 23)

例(4)에서 보면 ‘△’와 ‘ㅅ’의 兩形이 共存하여 [△]~[ㅅ]의 任意的 變動을 보이나,

- (5) 비+솜 →비솜(腹中 金 삼 4:61), 쇠+손→쇠손(鐵 字會 中 16), 혼+속→혼속(蘆繩 月釋 9:35), 한+소→한소(犧牛 龍 87)

와 같은 例(5)에서는, 例(4)와 同一한 音聲環境인데도 [△]~[ㅅ]의 變動 없이 오직 [ㅅ]로만 실현된다.

그러므로 ‘서, 서리, 삼, 숨’의 [ㅅ]와 ‘솜, 손, 속, 소’의 [ㅅ]는 基底 音韻에 差異가 있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基底 音韻 /△/와 /ㅅ/의 表面 音聲 實現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ㅅ]의 變動을 보이는 例(4)는 歷史的인 ‘△>ㅅ’ 變化的 過渡期 現象으로 보아야 한다. 그 理由는 複合語의 뒷 要素인 ‘서, 서리, 삼, 숨’ 등은 —‘설설(설설 蒙法 43), 섬섬(아른아른 金 삼 5:27), 익식(烹食 腹中 4:61), 쇠(膚 釋 11:22), 속(辱 月釋 2:25), 신식(人事 救急 1:4)’ 등 語頭에서 ‘△’가 使用된 例들의 殘滓로 보아 —語頭에서도 [△]

音을 가졌던 것인데, 語頭에서의 ‘△’가 使用된例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점과 또 ‘△’가 나타난 資料의 거의 全部가 그 音聲環境이 有聲音間이란事實로 미루어 보아, ‘△>ㅅ’의 變化가 語頭에서 먼저 發生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單一語 ‘여, 어리, 삶, 숨’ 등은 이미 ‘△>ㅅ’의 變化로 ‘서, 서리, 삶, 숨’ 등으로 실현되었으나, ‘두여, 프여리, 한삶, 한숨’ 등은 複合語라는 特性 때문에——이를 대변, 現代國語의 單語 ‘쌀’에는 語頭에 [ㅂ]이 없음에도 ‘조+쌀→糟쌀’로, ‘암’의 경우에는 語末에 [ㅎ]이 없음에도 ‘암+닭→암탉’으로 각各 實現되어 中世國語의 殘滓를 보여 주는 점으로 보아 複合語는 單一語보다는 保守的이라 할 수 있다.——‘△>ㅅ’의 變化가 늦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推測이 可能한데, 아직도 ‘△>ㅅ’의 變化가 完成되기 前의 過渡期였기 때문에 ‘두여：두어, 프여리：프서리, 한삶：한삼, 한숨：한숨’ 등이 共時的으로 兩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語頭에서 ‘△>ㅅ’의 變化가 完成된 以後에는 ‘한삶, 프여리, 한숨’ 등은 消滅되고 ‘한산, 프서리, 한숨’만이 남아 現代語에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여：두서’의 경우는 混難되다가 有聲音間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규칙 ‘△>ㅇ’에 끌리어 ‘두어’로 變化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歷史的인 ‘ㅅ>△’의 變化로 ‘△’系 어휘가 나타나고, 이에 겹쳐 또 方言의 ‘ㅅ’系 어휘가 침투하여 ‘두여：두어, 프여리：프서리, 한삶：한삼, 한숨：한숨’ 등이 共存하게 되었다(李基文, 1972:34)는 해석보다는 合理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中央語에서는 語頭에서 시작된 ‘△>ㅅ’의 規則과 그 後에 有聲音間에 發生한 ‘△>ㅇ’의 規則이 混難을 보였으나, 現代語의 ‘ㅅ’系 方言은 ‘△>ㅅ’의 規則이 有聲音間에도 계속 침투하여 現在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다음의 例를 보자.

- (6) ① ‘아 수’ (弟)> {았이(龍 103)
 앞이라(釋 13:2)}
- ② ‘여 스’ (孤)> {영이 니(楞 2:3)
 엿이(月釋 2:76)}
- ③ ‘그스一’ (曳)> {궁우물(杜草 20:34)
 웃우문(杜草 15:25)}
- ④ ‘비스一’ (扮)> {빚어(月釋 2:5)
 벗어(月釋 7:3)}
- ⑤ ‘모수一’ (碎)> {모아(永嘉 上 20)
 모아(月釋 21:131)}

- ⑥ ‘보스—’ (碎) > {봉어디도다(杜忠 25:7)
봉어듀말(杜忠 20:19)}
- ⑦ ‘봉—’ (注) > {봉느니(楞 4:18)
봉느니라(月釋 10:76)}
- ⑧ ‘옹봉—’ (可笑) > {옹봉니(月釋 7:1)
옹봉니(月千 176)}

먼저 例①~⑥의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이들은 앞에서 ○·△· 살펴본 바와 같이 語幹(語根)末 母音 ‘으, 으’가 削除됨으로 말미암아 ‘△’終聲을 갖게 된 것인데, 이 중 ①과 ②는 體言으로서 單獨으로나 共同格 助詞가 連結되면 ‘아수, 여스’ 등으로 나타나고 母音으로 시작된 助詞가 連結되면 15世紀 國語 表記法의 原則인 音節 單位로 묶어 表記되는 原則을 벗어나 切音現象이 일어나 다음 音節에 連音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八終聲可用의 原則이 적용되어 ‘△→ㅅ’로의 音韻變動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 ‘△’가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여 ‘△→ㅅ’의 變動은 任意的이다.

例③~⑥의 경우는 用言으로서 앞의 體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語幹末의 ‘으, 으’가 脫落되어 ‘△’末音을 갖게 된 것으로 이것 역시 母音으로 시작된 語尾가 連結되면 切音現象이 일어나며 子音으로 시작된 語尾가 連結되면 原形대로 활용한다. 이것도 母音으로 시작된 語尾가 붙을 때는 앞의 경우와同一한 規則의 적용을 받는다.

例⑦~⑧의 경우는 처음부터 語幹 末音이 ‘△’인 것으로 이들 語幹에 無聲子音으로 시작된 語尾가 붙으면 ‘△→ㅅ’의 變動을 보이며, 語末에서도同一한 变동을 보인다. (ㅈ→ㅊ(釋 19:4)). 그리고 有聲子音의 語尾가 붙으면 ‘△→ㅅ’는 任意的이며, 母音으로 시작된 語尾가 붙으면 ‘△’가 그대로 실현된다.

(7) ‘一술—’ : 말이 습거늘(龍 58), 보습전댄(月釋 18:21), 아습계(知 月釋 10:85)
안수박(月千 23), 담수박(月釋 14).

‘一술—’ : 막습거늘(月千 100), 납습고(月釋 2:72), 허습고(月釋 2:51), 노
습고(放 釋 9:22), 돌수박(釋 9:34).

‘一술—’ : 들품계(釋 13:17), 밭습더라(月釋 2:37), 연조박(龍 27), 이밭조
보려(釋 6:16), 허습고저(龍 78), 마습더니(月釋 21:203).

위의 例(7)은 기저음운 /△/가 표면음성 [△, ㅅ, ㅈ]의 셋으로 실현된 것으로, [ㅅ]는 [△]가 無聲子音 뒤에서 無聲音化한 것이고, [ㅈ]는 [△]가

무성자음 뒤에서 무성음화한 다음 다시 [ㄷ]의 영향으로 [ㅈ]가 된 것이다.
(허웅, 1978: 694)

以上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여 우리는 中世國語에서 基底音韻／△／의 存在를 인정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表面音聲으로 실현될 때는 有聲音間에 서는 [△]로, 餘他의 환경에서는 [ㅅ, ㅈ]로 실현된다는 공시적인 음운현상을 알았다. 그리고 語頭에서 '△'가 쓰인例는 共時的인 입장에서는 음운규칙 '△→ㅅ'의 적용을 받지 않는例外的인 存在이지만 遷時的인 입장에서는 '△>ㅅ'의 잔재로 낡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2.2.2. 다음에서는 /△/가 歷史的으로 어떻게 變遷되었는가를 알아 보자.

15世紀의 國語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저음운 /△/는 표면음성 [△, ㅅ, ㅈ] 등으로 나타났는데, 表面音聲 [△]가 文獻上에서 사라진 16世紀 宗廟에도 表面音聲 [ㅅ]는 存續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면음성 [△]는 주로 [ㆁ]로 變化되었으나, 部分的으로는 [ㅈ]로 變化된 것도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ㅈ]는 方言의 영향이라고 說明하기도 하나(李崇寧, 1960: 63), 筆者의 見解는 이와는 다르다.

그럼 먼저 /△/가 變化된例를 보자.

(8)

'ং-'(笑)> {웃고, 웃음 우스며 셔(杜重 6:39), 우소니(癸丑 37),
웃고, 우울 우어서(杜重 5:33), 우울(癸丑 37)}

{비) 우술 카(嗤)(類合 下 30), 우스켜
우울 죠(笑)(類合 下 7), 우으며(朴重 下 2)}

'ঁ-'(造)> {지술(類合 下 41)
지을(類合 上 3)}

'ঁ-'(邊)> {ঁশি(恩重 17)
ঁঔ(小印 5:34)}

'ঁ-'(問)> {조사(七大 4)
조사(分은 7)}

위의 例에서 보면 'ㅅ'系와 'ㆁ'系가 混亂을 보이고 있으며同一文獻에서도 兩形이 共存한다. 그리고 'ㅅ'系는 表面音聲 [ㅅ]만을, 'ㆁ'系는 表面音聲 [ㅅ, ㆁ]의 둘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方言의 영향이라면同一文獻에 中央語形과 方言語形이 나란히 나타났을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兩形이 共存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먼저 ‘○’系를 보면 表面音聲에서 $\triangle > \circ$ 의 變化를 보이나 그들이 나타내는 音韻現象은 원래부터 \circ 였던 어휘의 그것과는 差異를 보인다. 이를 데면, ‘우으며(笑)：주며(給), 지어(作)：져(負)’에서 보는 것처럼 ‘—으—’의 削除나 hiatus 회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 理由는 비록 表面에서는 $/\triangle/$ 가 삭제되어 ‘우—(笑)：주—(給), 지—(作)：지—(負)’처럼 同一한 母音으로 끝난 語幹이 되었지만 基底音韻에서의 차이 때문에 音韻現象에 차이를 가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表面音聲에서는 $\triangle > \circ$ 의 變化를 보였으나 基底音韻 $/\triangle/$ 는 그대로 存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現代國語에서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이병근, 1976 : 79~82, 146~148)

이의 導出過程을 다음에 보인다.

기 저 형	$/\text{웅} + \text{으며}/$	$/\text{주} + \text{으며}/$	기 저 형	$/\text{징} + \text{어}/$	$/\text{지} + \text{어}/$
‘으’삭제	——	주 + 며	i → y	——	져
언 음	우 스 며	——	언 음	지 어	——
△ 삭제	우 으 며	——	△삭제	지 어	——
표현형	[우으며]	[주 며]	표현형	[지어]	[져]

그런데 ‘ㅅ’系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 > ㅅ’化하는 音韻規則이 이른 時期에 있었는데 이 規則이 有聲音間에도 침투하여 ‘△ > ㅅ’로 變化를 일으켜 傳해 내려 온 것으로 이것이 ‘○’系와 共存하게 된 것이다. 李崇寧(1960 : 92)에서는 有聲音間의 \triangle 가 ㅅ 로 變化된 것이 現代 서울말에서 34.8%나 된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어 ‘△ > ㅅ’ 규칙의 침투력을 매우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現代 국어의 ‘웃어’의 경우는 ‘△ > ㅅ’의 규칙이, ‘지어’의 경우는 ‘△ > ○’의 규칙이 각각 송리한 결과다.

그런데 기저음운의 변화를 보면 $\triangle > \text{ㅅ}$ 의 경우는 $/\triangle/$ 에서 $/\text{ㅅ}/$ 로 變化를 일으켰으나 $\triangle > \circ$ 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triangle/$ 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15世紀의 基底音韻 $/\triangle/$ 는 後代에 $/\text{ㅅ}/$ 와 $/\triangle/$ 의 두 方向으로 變化를 일으키 이 경우의 $/\text{ㅅ}/$ 는 既存의 $/\text{ㅅ}/$ 에 合流되었다.

그럼 다음에서는 第一變化規則이라고 할 수 있는 ‘△ > ㅅ’가 为 語頭에서 먼저 일어났으며, 第二變化規則이라고 할 수 있는 ‘△ > ○’가 有聲音間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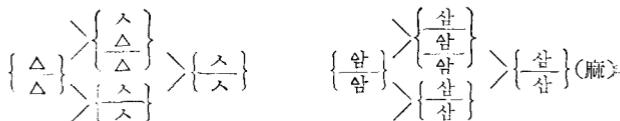
일어나게 된 과정을 앞의 假說에 따라 說明하기로 한다.

‘△>ㅅ’의 경우부터 살펴 보면, /△/가 音節末이나 子音 앞에서 [ㅅ]으로 實現되는 共時的인 音韻變動의 영향을 받아, 音韻論上으로 볼 때 이와 비슷한 音聲環境이라고 할 수 있는 語頭에서 먼저 發音의 變化([△]→[ㅅ])를 가져 왔으리라는 假定은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 parole (表面音聲)을 들은 兒童은 langue(基底音韻)/ㅅ/의 實現으로 생각하여 基底音韻의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의 再構造化過程에서 /△/가 되지 않는 理由는 語頭의 /△/가 有聲音間에 놓일 수 있는 環境은 오직 複合語의 訣 要素가 될 경우다. 그것도 앞의 形態素 末音이 有聲音인 경우에限한다. 그러므로 語頭의 /△/가 [△]로 實現되는 경우를 잘 經驗하지 못한 兒童들은 音韻의 再構造化過程에서 表面音聲 [ㅅ]를 그대로 基底音韻 /ㅅ/로 저장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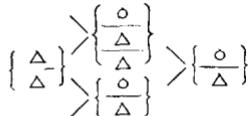
그리고 有聲音間에서는 16世紀後半에 들어와서 [△]가 弱化되어 脫落되니, 表面音聲 [ㅅ], [ㅎ]로부터 基底音韻의 再構造化가 이루어져 /△/에서 /ㅅ/로 變化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모든 環境에서 變動 없이 [ㅅ]로만 實現되는 /ㅅ/가 있기 때문에 有聲音間에서 [ㅎ]로, 餘他의 환경에서 [ㅅ]로 실현되는 音韻은 /ㅅ/일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基底音韻의 再構造化는 이루어지지 않고 /△/ 그대로 存續한다고 說明된다.

以上의 說明을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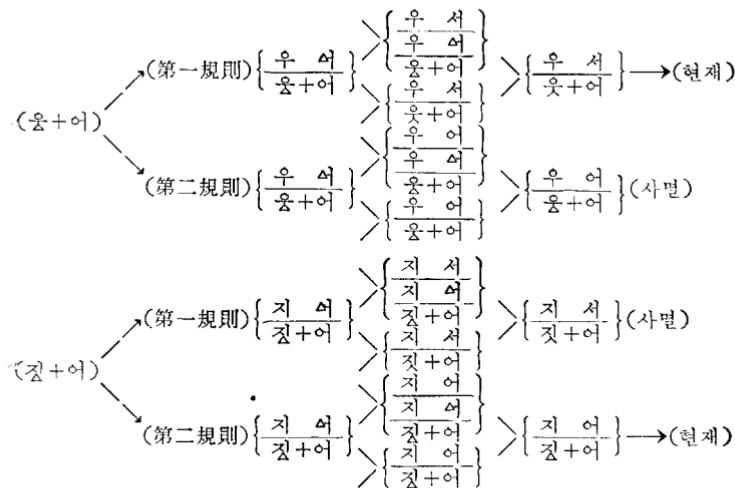
第一變化規則 ‘△>ㅅ’



第二變化規則 ‘△>ㅇ’



“웅(笑)+어”와 “짓(造)+어”를 例로 두 規則의 適用 過程을 보인다.



III.

이상에서 우리는 Saussure의 langue 와 parole의 概念을 빌어와 이것을 바탕으로 音韻變化의 假說을 設定하고, 이 假說에 따라 ‘○’와 ‘△’의 歷史的 變遷을 살펴 보았으나 ‘○’은 無音字이기 때문에 音韻史의 考察의 意義가 없는 것이나 一部의 ‘○’의 深層에는 基底音韻이 存續하기 때문에 15世紀 國語 表記法의 一般原則에 어긋나는例外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의 音韻史的 考察에서는 이제까지의 音韻史 考察 方法과는 달리 基底音韻의 變遷 過程을 追求함으로써 /△/는 第一變化規則 ‘△>ㅅ’와 第二變化規則 ‘△>○’의 둘을 經驗했으며, 第一變化規則을 경험한 어휘들은 基底音韻에서 /△/>/ㅅ/의 變化가 일어나 既存의 /ㅅ/에 合流되었으며, 第二變化規則을 경험한 어휘는 基底音韻 /△/가 그대로 存續한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그런데 本論에서는 言及되지 않았던 ‘조사’와 같은 例는 表面音聲이 ‘조사’>‘조사’>‘조사’>‘새’로 變化를 일으켰는데 ‘조사’의 단계까지는 基底音韻

$/ \triangle /$ 가作用하여 hiasus回避를 위한 音韻縮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表面音聲이 '새'로 바뀐 뒤에는 基底音韻 $/ \triangle /$ 가 淘滅된 것이다.

그리므로 基底音韻 $/ \triangle /$ 는 現段階에서 볼 때 $/ \wedge /$, $/ \triangle /$, $/ \dot{\wedge} /$ 的 方向으로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1979. 8. 30)

參 考 文 獻

安秉禧：「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研究」，1978，塔出版社

李基文：「國語音韻史研究」，1972，韓國文化研究所

：「改訂國語史概說」，1976，民衆書館

이명전：「현대 한국어의 생성 음운론」，1976，일지사

李崇寧：「音韻論研究」，1955，民衆書館

：「國語學論攷」，1960，東洋出版社

崔世和：「15世紀國語의 重母音研究」，1976，亞細亞文化社

허 용：「國語音韻學<改稿新版>」，1975，正音社

：「우리 옛말본」，1978，.sep문화사

Saussure :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Langacker : *Language and Its Structure*, 1973

(朴槿祐, 崔鉉郁 共譯：「改訂 言語와 構造」，1977，學士院)。

Harms : *Introduction to Phonological Theory*, 1968, Prentice-Hall, Inc.

Echane : *Generative Phonology*, 1973, Prentice-Hall, Inc.

Chomsky, N. and M. Halle :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1968, Harper & Row,
New York.

Hyman : *Phonology*, 1975, Holt, Rinehart and Winston.